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31일까지 건설 현장 158 곳 '안전 점검'

등록 2025.03.05 16:29:34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오는 31일까지 해빙기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진=전남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해빙기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오는 31일까지 전남지역 주요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흙막이, 굴착 작업 등 토공사가 진행되는 건설 현장 158곳이다.

공사는 본부와 지사 점검반을 각각 편성해 안전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절성토 굴착면 무너짐', '연약지반 흙막이 무너짐' 등 지반 침하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최근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 감시자 지정 여부 등 건설 현장 화재 사고에 대한 특별 점검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안전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활동



박영래 기자

2025.03.05 오후 04:20

건설현장 158개소 지반 침하 위험요소 집중 점검
김재식 본부장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2025.3.5./뉴스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남지역 건설현장 15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5일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주요 점검 대상은 흙막이와 굴착작업 등 토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이다.

농어촌공사 본부와 지사 점검반을 각각 편성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성토 굴착면 무너짐 △연약지반 흙막이 무너짐 △지반 침하에 따른 동바리 및 건설기계 전도 등 해빙기 지반 동결·융해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위협요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등 건설현장 화재사고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김재식 전남본부장은 "안전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

☞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709460>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안춘배 기자 | 승인 2025.03.06 09:40

해빙기 지반 동결·융해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위협요소 집중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남지역 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흙막이와 굴착작업 등 토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 158개소다. 공사는 본부와 지사 점검반을 각각 편성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성토 굴착면 무너짐 △연약지반 흠막이 무너짐 △지반 침하에 따른 동바리와 건설기계 전도 등 해빙기 지반 동결·융해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위협요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등 건설현장 화재사고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김재식 본부장은 "안전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춘배 기자 acbae@afnews.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해빙기 건설현장 158곳 안전점검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6:09 |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6:15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남지역 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흙막이 및 굴착작업 등 토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 158개소이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점검반 직원이 건설장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농어촌공사전남본부] 2025.03.05
ej7648@newspim.com

공사는 본부와 지사 점검반을 각각 편성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성토 굴착면 무너짐 ▲연약지반 흠막이 무너짐 ▲지반 침하에 따른 동바리 및 건설기계 전도 등 해빙기 지반 동결·융해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위협 요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등 건설현장 화재사고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김재식 본부장은 "안전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어촌공 전남본부,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 점검 실시

머니투데이 | 나주=나요안 기자

2025.03.07 10:3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0710243342346&type=1>

기사주소 복사

■ 해빙기 지반 동결·융해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위협요소 집중점검



토공사 절토면 해빙기 안전점검 장면/사진제공=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 전남본부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남 지역 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흙막이, 굴착작업 등 토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 158개소다.

공사는 본부와 지사 점검반을 각각 편성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성토 굴착면 무너짐 △연약지반 흠막이 무너짐 △지반 침하에 따른 동바리 및 건설기계 전도 등 해빙기 지반 동결·융해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위협 요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등 건설현장 화재사고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김재식 전남본부장은 "안전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해빙기 지반 동결·융해에 따른 안전 위협요인 집중점검

2025년 03월 05일 (수) 오후 07시 28분 00초

한봉수기자 onda88@inews24.com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남지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흙막이·굴착작업 등 토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 158개소 이다. 공사는 본부와 지사 점검반을 각각 편성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점검반 직원이 건설장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특히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성토 굴착면 무너짐 △연약지반 흙막이 무너짐 △지반 침하에 따른 동바리·건설기계 전도 등 해빙기 지반 동결·융해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위협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등 건설현장 화재사고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김재식 전남지역 본부장은 “안전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위클리오늘]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이경재 기자 | ☎ 승인 2025.03.05 17:31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점검반 직원이 건설장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농어촌공사 지역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남지역 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흠막이 및 굴착작업 등 토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 158개소 이다. 공사는 본부와 지사 점검반을 각각 편성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성토 굴착면 무너짐 △연약지반 흠막이 무너짐 △지반 침하에 따른 동바리 및 건설기계 전도 등 해빙기 지반 동결·융해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위협 요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점검반 직원이 토공사가 진행되는 사업현장을 중심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등 건설현장 화재사고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김재식 본부장은“안전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재 기자 kjlee5000@hanmail.net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주동석 기자 | ⓒ 승인 2025.03.05 15:05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남지역 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점검반 직원이 토공사가 진행되는 사업현장을 중심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주요 점검 대상은 흠막이 및 굴착작업 등 토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 158개소 이다.

농어촌공사는 본부와 지사 점검반을 각각 편성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성토 굴착면 무너짐 △연약지반 흙막이 무너짐 △지반 침하에 따른 동바리 및 건설기계 전도 등 해빙기 지반 동결·융해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위협요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등 건설현장 화재사고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안전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동석 기자 jds155@naver.com

농어촌공사 전남,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집중'

✎ 이창식 기자 | ⓒ 승인 2025.03.05 16:29

근로자 안전 위협요소 집중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전남지역 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전남지역 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흙막이 및 굴착작업 등 토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 158개소 이다. 공사는 본부와 지사 점검반을 각각 편성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성토 굴착면 무너짐 △연약지반 흙막이 무너짐 △지반 침하에 따른 동바리 및 건설기계 전도 등 해빙기 지반 동결·융해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위협요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등 건설현장 화재사고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본부장은 "안전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식 기자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전남지역 건설현장 158개소 안전점검

✎ 정운석 기자 | ⌚ 승인 2025.03.05 16:53

본부.지사 점검반 편성,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주안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전남지역 내 건설현장 15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사진=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전남지역 내 건설현장 15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흠막이 및 굴착작업 등 토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으로 본부와 지사 점검반을 각각 편성한다.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성토 굴착면 무너짐, 연약지반 흠막이 무너짐, 지반 침하에 따른 동바리 및 건설기계 전도 등 해빙기 지반 동결·융해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위협요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등 건설현장 화재사고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김재식 본부장은 “안전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석 기자 hkilbokj@hanmail.net

농어촌공 전남,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 김육봉(=호남) 기자 | ⓒ 승인 2025.03.05 16:11



[사진 제공=한국농어촌공사]

[폴리뉴스 김육봉(=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남지역 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흙막이 및 굴착작업 등 토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 158개소 이다. 공사는 본부와 지사 점검반을 각각 편성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성토 굴착면 무너짐 △연약지반 흙막이 무너짐 △지반 침하에 따른 동바리 및 건설기계 전도 등 해빙기 지반 동결·융해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위협요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등 건설현장 화재사고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김재식 본부장은“안전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육봉(=호남) 기자 news1@polinews.co.kr

농어촌公 전남,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해빙기 지반 동결·융해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위협요소 집중점검

김춘수 기자(=전남) | 2025.03.06. 10:22:33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남지역 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흙막이 및 굴착작업 등 토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 158개소 이다.

공사는 본부와 지사 점검반을 각각 편성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지역본부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남지역 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전남본부

특히,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성토 굴착면 무너짐 △연약지반 흠막이 무너짐 △지반 침하에 따른 동바리 및 건설기계 전도 등 해빙기 지반 동결·융해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위협요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등 건설 현장 화재사고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김재식 본부장은 "안전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집중 점검

✎ 김상규 기자 | ⓒ 승인 2025.03.05 17:28

지반 동결·융해 따른 위험요소 파악
시설 정비 등 안전 확보 총력전 펼쳐



농어촌공사 전남본부가 해빙기를 맞아 지역 내 건설 현장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사진=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한국금융경제신문=김상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남지역 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5일 공사에 따르면 주요 점검 대상은 흙막이 및 굴착작업 등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 158개소다.

공사는 본부와 지사 점검반을 각각 편성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성토 굴착면 무너짐 ▲연약지반 흙막이 무너짐 ▲지반 침하에 따른 동바리 및 건설기계 전도 등 해빙기 지반 동결·융해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위협요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등 건설현장 화재사고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지역 본부장은 “안전은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규 기자 ksg760918@kfenews.co.kr